

2 뉴스

최희섭 재정본부장 행·재정 부총장으로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우리학교 행정·재정부총장에 최희섭 전 재정운영본부장이 임명됐다. 교원이 아닌 직원이 부총장에 임명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19년부터 재정운영본부장직을 맡고 있던 최희섭 본부장은 지난 30일 행정·재정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최 부총장 이에 대해 “우리학교가 행정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경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전문 행정 체제 구축과 재정 구조 변화, 행정 전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 부총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래지향적 전문 행정 시스템 개발과 행정 문화 혁신이다. 최 부총장은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성과 평가 및 보상 체제를 마련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새로운 대학 재정 패러다임 모색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대학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재정부총장 임명 소식에 우리학교 양 노조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임경렬)은 ‘경희대학은 물론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에서 교내 직원이 부총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학원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지부장, 박경규) 역시 ‘전문행정을 위한 대학과 행정 직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신임 최 부총장이 전문 행정인 부총장으로서 한국의 대학사회에 큰 의미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월 15일부터 기능형 부총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총장별로 기능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고·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능형 부총장제를 통해 부총장별로 책임 영역을 설정, 보다 전문적인 학내 부서 관리를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행정·재정부총장인 최 부총장의 책임 영역은 ▲인사처 ▲재무처 ▲정보처 ▲재정운영본부 ▲총무관리처(서울·국제) ▲대외협력처(서울·국제) ▲산학협력단 ▲예비군연대본부(서울·국제) ▲건강센터(서울·국제) ▲평화의전당 ▲생활관(서울·국제)이다.



미술대학 앞 야외 데크에 취식 공간이 설치됐다.

(사진=이현정 기자)

▶1면 ‘미술대학’에서 이어짐

미대 재학생 A 씨는 “야외실습장은 조소과 학생들이 냄새가 심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등 실내에서 하기 힘든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며 “기계 사용 시 파편이 될 염려가 있을 때 사용하고, 용접 작업도 이뤄지는 곳으로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미술대학 건물 내에는 수업을 위한 공간과 실기실을 제외하고 휴게실,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대 건물은 캠퍼스의 다른 건물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어렵다. A 씨는 “매점이 있는 청운관으로 이동하려면 대략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미술대학 학생들은 꾸준히 단과대학 건물 내의 휴게 공간을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대 학생들은 교내 실기실을 취식 공간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에 따른 학교의 방역 지침으로 건물 내부에서 취식이 불가해지자 학생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로 나오게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긴 수업과 실기 과제를 수행하며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돛자리를 깔고 맨바닥에서 음식을 먹었다”며 “이후 단과대학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를 명목으로 야외실습장에 취식 공간을 마련했으나 해당 공간이 비위생적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휴게시설 유치가 흐지부지되면서 현재 미술대학 학생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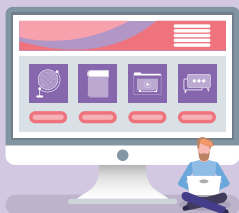
이러한 논란에 미대 행정실은 “야외실습장에 마련된 취식 공간은 임시 공간이었으며, 현재는 미술대학 앞 데크로 취식 공간을 옮긴 상태”라고 말했다. 미대 행정실은 코로나19로 건물 내 취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야외 데크와 야외실습장을 취식 공간 후보로 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옥상은 안

전상 문제가 있어 후보에서 제외됐다. 행정실 측은 “천장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야외실습장에 임시 취식 공간을 마련해 두고 파라솔을 구입해 야외 데크로 취식 공간을 옮길 예정이었다”며 야외실습장을 임시 취식 공간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단과대학 내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과 논의를 했지만, 매점의 수익성과 공간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정실 역시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휴게 공간 확보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협은 “당시 미술대학에 매점 설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적절한 공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기존 매장의 운영도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미술대학 건물 내에 생협 매장 설치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매점 설치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식 홍보영상 공모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홍보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식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회원교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소개 및 홍보
지원자격	대학혁신지원사업 143개 회원교의 대학(원)생 및 교직원
참가자구성	- 학생부: 팀(2 ~ 4명) 지원 권고 - 일반부(대학원생 및 교직원): 개인/팀 자율 선택 지원
접수기간	2021년 5월 3일(월) ~ 5월 28일(금)
심사및발표	6월 중
시상식	6월 중(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출품규격	- 파일형식: mp4, mov, avi, mpeg, wmv 등 - 영상형식: 바이럴, 인포(모션)그래픽, 라인드로잉, 인터뷰 등 자율형식 - 해상도: HD(1280 X 720), FULL HD(1920 X 1080) 이상 - 작품분량: 3분 이내 권장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uispc@pusan.ac.kr) ※ 1차 심사 통과 대상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및 원본파일 제출 별도공지 예정
심사기준	창의성, 작품성, 주제 표현, 활용성 등
시상내역	총 상금 규모 1,0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문의	TEL. 051-510-7905 E-mail, uispc@pusan.ac.kr Web, http://uispc.org ※ 지원 서류 및 상세 지원방법, 유의사항은 총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필히 체크바랍니다)